

부천시립도서관 고전강의
<노자> 강의개요서 / 2014년 5월 8일

시민 인문학 강좌--<노자>의 눈으로 삶을 보다

<강의 일정>

일 정 : 2014. 5월 매주 목요일 오후 7:30-9:30 (4주)

장 소 : 부천시립도서관

지 점	날 짜	시 간	강 의 주 제	회차
부천 시립 도서관	5/1?	19:30-21:30	제1강, 우리에게 노자란 무엇인가 -<노자>라는 책과 '노자'	1
	5/8?	19:30-21:30	제2강, 우리는 어떤 사랑을 꿈꿀 수 있는가-노자의 사랑과 그리스인의 에로스	2
	5/15?	19:30-21:30	제3강, 행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가-욕망실현과 만족의 기술	3
	5/22?	19:30-21:30	제4강, 너와 내가 함께 하는 쿨한 삶-무관심의 윤리학	4

<강의 소개>

<노자>는 <도덕경>이라고도 불리는, 전통 동아시아의 고전 가운데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번역된 책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전통 사회에서 가장 많은 주석과 연구가 이루어진 책이기도 하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듣는 말들, 예컨대 '무위(無爲)', '자연(自然)', '도덕(道德)' 등의 말은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쓰는 말이지만 본래의 의미와 현대인의 의미는 전혀 다르다. 이 강좌는 우리에게 너무 친숙한 것처럼 생각되는 동아시아의 고전 <노자>를 낯선 것으로서, 우리들의 삶의 세계를 전혀 낯선 세계로 보게끔 도와주는 하나의 '거울'로 이용하면서, 우리들의 삶이 왜 이런 것인지, 다른 방식의 삶은 가능한지를 따져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들은 이 강좌를 통해 우리 모두의 삶과 관련된 사랑과 에로스, 정치, 전쟁과 평화, 욕망과 만족, 영원과 불멸, 죽음 등 다양한 주제를 낯선 눈으로 바라봄으로써 우리 자신의 삶을 새롭게 보고 또한 다른 방식을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그런 의미에서 <노자>는 우리 삶을 비추어 보는 거울이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소재와 언어로 강의를 진행할 것이므로, 누구나 수강이 가능한 강좌가 될 것이다.

<주차별 강의 주제와 일정>

제1강, 우리에게 노자란 무엇인가?—『노자』라는 책과 '노자'

우리에게 고전 『노자』는 누구에게나 친숙한 이름이지만 실제로 읽히지 않는, 그래서 신비로운 어떤 지혜의 책으로 여겨진다. 강의를 시작하며, 『노자』가 어떤 책인지 그리고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 책인가를 살피는 개괄적인 이야기로 출발한다. 『노자』는 '고전'이지만 그 이름처럼 또한 오래된 책이다. 오래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살피면서, 『노자』에 다가가는 방법을 생각해 본다.

제2강, 우리는 어떤 사랑을 꿈꿀 수 있는가?—노자의 사랑과 그리스인의 에로스

『노자』는 이 세계를 하나의 성적인 세계로 상상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야 우리가 태어나듯이 이 세계의 모든 것 또한 하늘과 땅이라는 부모로부터 비롯된다. 이 세계는 그런 의미에서 거대한 하나의 가족이다. 그럼에도 『노자』는 공자의 인(仁)과 같은 사랑의 세계를 말하지 않는다. 왜 그러한 것일까? 우리는 『노자』가 들려주는 우주적 사랑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이를 그리스의 소크라테스와 자연철학자들의 에로스와 비교하여 생각해 볼 것이다.

제3강, 행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욕망 실현과 만족의 기술

동아시아 사상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금욕주의가 없다는 점이다. 유가와 도가는 이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렇다면 동아시아 전통 사상은 인간의 욕망과 욕구를 무한정 긍정하려는 현대 사회와 비슷하나 하면 또 그렇지도 않다. 동아시아 전통은 욕망을 부정하지 않고 또 죄악시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욕망을 만족의 기술을 통해 최적화된다고 본다. 『노자』의 이런 생각은 오늘날 자본주의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처방처럼 보인다.

제4강, 너와 내가 함께 하는 쿨한 삶—무관심의 윤리학

우리는 오늘날 윤리적인 인간,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회에 살면서 이를 개인적 삶의 목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인간적으로 훌륭한 인간보다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인간을 더 높이 생각한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도덕적 사회를 지향하지만 실제로는 비도덕적 인간을 추구한다. 그런 의미에서 『노자』의 무관심의 윤리를 매우 현실적인 생각처럼 들린다. 무관심하지만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인간,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제1강, 우리에게 노자란 무엇인가?

—『노자』라는 책과 '노자'

『노자』에 대한 물음

—독일 출신의 학자 한스 게오르그 뮐러(Hans-Georg Moeller)

오늘날 당연하게 여기는 가치와 관념의 대부분을 우리는 『노자』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노자』를 정치적 텍스트로 읽는다 해도 우리는 예를 들어 ‘민주제’, ‘자유’, ‘권리’, ‘정의’와 같은 개념들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정치 담론은 2,500년 전의 중국과 아무런 공통점이 없습니다. 형식적인 선입견을 갖고 그 텍스트에 접근하는 것도 해석학적으로 문제가 되겠지만, 그것이 오늘날의 의미론에 한결같이 적합할 것이라 기대하는 것 또한 문제가 많은 태도입니다.(Hans-Georg Moeller, The Philosophy of the Daodajing,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6. p. xi.)

하나이면서 여럿인 『노자』, 『노자열전』

- | |
|-------------------------------------|
| 1.1 노자의 성명(姓名), 자(字) 그리고 출생지, 주요 직위 |
| 1.2 노자와 공자의 만남 |
| 1.3 노자의 출관(出關) 설화와 『도덕경』 전수 |
| 2.0 노자의 또 하나의 후보, 노래자(老萊子) |
| 3.0 노자의 장수와 그 이유 |
| 4.0 노자의 또 다른 후보, 주(周)의 태사 담(詹) |
| 5.1 노자 후손의 계보 |
| 5.2 노자의 학문과 현황 |

노자의 성명, 자, 출생지 및 직위

1.1 노자는 초나라의 고현 여향의 곡인리 사람이다. 성은 이(李) 씨요 이름은 이(耳), 자는 담(聃)으로 주나라의 수장실의 사관이었다.

老子者，楚苦縣厲鄉曲仁里人也，姓李氏，名耳，字聃，周守藏室之史也。

노자와 공자의 만남

1.2 공자가 한번은 주나라에 갔는데 이는 노자에게 예에 대해 묻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 때 노자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대가 말한 것은, 이미 그 말을 한 사람이 그 뼈와 더불어 썩어 버리고 다만 그가 한 말만 남아 있소이다. 또한 군자는 때를 얻으면 벼슬에 나아가고 그 때를 얻지 못하면 구름 따라 바람 따라 떠돌 뿐이오이다. 내가 듣건대 훌륭한 상인은 창고를 가득 채우고서도 마치 비어있는 듯이 한다고 합니다. 군자는 덕이 성대해도 그 모습이 마치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합니다. 그대는 교만한 마음과 많은 욕심, 뻣뻣한 태도와 도발적인 뜻을 버려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그대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다만 이것뿐입니다.”

공자는 그 자리를 떠난 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새는 잘 날아다니고, 물고기는 잘 헤엄치며, 짐승은 잘 달린다는 것은 나도 잘 안다. 달리는 짐승은 그물로 잡으면 되고,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는 낚시줄로 잡으면 되고, 날아다니는 새는 활로 잡으면 된다. 하지만 용은 어떻게 바람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오르는지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

구나. 내가 오늘 노자를 만났는데 그가 바로 용과 같구나!”

孔子適周，將問禮於老子。老子曰：「子所言者，其人與骨皆已朽矣，獨其言在耳。且君子得其時則駕，不得其時則蓬累而行。吾聞之，良賈深藏若虛，君子盛德，容貌若愚。去子之驕氣與多欲，態色與淫志，是皆無益於子之身。吾所以告子，若是而已。」孔子去，謂弟子曰：「鳥，吾知其能飛；魚，吾知其能游；獸，吾知其能走。走者可以爲罔，游者可以爲綸，飛者可以爲矰。至於龍吾不能知，其乘風雲而上天。吾今日見老子，其猶龍邪！」

<분석>

· 이야기의 일반 형식에서 볼 때, 공자는 생애 내내 지극히 다양하고 풍부한 역사적 사건들과 관련을 맺는 반면에, 기원전 100년 이전의 자료에서 노담에 관한 기록들은 하나같이 공자와 노자의 만남이라는 핵심을 축으로 전개된다는 점이다. 사실 공자에게 이 만남은 사소한 것일 수 있다.

· 공자와 노담의 만남 이야기는 기원이 유가에 있으며, 도가가 노담을 자기 학파의 대변자로 차용한 것이다. 만약 노담이 처음부터 도가였다면 유가가 자신의 스승을 그의 제자로 만드는 꼴이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이는 『논어』(論語)에서 공자가 은자를 만나는 태도와는 분명 다르다.

· 『장자』와 『예기』 「중차문」에서는 모두 공자에게 ‘구(丘)라고 이름을 부른다. 만약 이 이야기가 도가에서 유래한 것이라면, 자신들의 스승을 격하시키는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기록하였을까? 따라서 유가는 자신의 전통에서 보아도 이런 일이 전혀 누가 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 도가는 단 속셈이 있지만 유가는 전혀 속셈이 없다. 만약 어떤 어리석은 유자(儒者)가 그렇게 하였다면, 적어도 그는 노담이 인의(仁義)를 가르치는 유가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왜 도대체 그들은 노담을 단지 장례(葬禮)의 세부 사항을 가르친 선생으로 그대로 두었던 것일까?

· 『장자』 「내편」에서 노담은 망해가는 ‘주지장장사(周之徵藏史) 즉 기록의 보관자라는 대단히 무료한 직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그가 공자에게 하는 말이 「노자열전」에서 왜 하필이면 “그대가 말한 것은, 이미 그 말을 한 사람이 그 뼈와 더불어 썩어 버리고 다만 그가 한 말만 남아 있소이다.”와 같은 문헌 전통에 대한 경멸적 언사였던 것일까? 또한 『장자』 「내편」에는 주 문왕(周文王), 주 무왕(周武王), 주공(周公)에 대해 일체의 언급이 없다. 「외편」과 「잡편」에서 유일하게 한 번 주 문왕이 나오는데 거기의 이야기도 주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노담의 관직이 주에 있었던 것일까?

· 사마천 이전의 문헌에서 노담은 단지 노담일뿐 그에게 성(姓)이란 없었다. 이런 식이라면 그는 단지 공자의 말처럼 ‘술이부작(述而不作) 하는 옛 전통의 수호자로서 존경받는 유가의 전설적 인물로서 아주 제격이다. 그런데 왜 도가에서는 자기 학파의 창건자에게 이름을 주는 것조차 못하였을까?

· 『사기』 이전의 문헌에서는 노담을 노자(老子)라고 부르는 것이 달갑지 않아 보인다. 거의가 다 노담일 뿐 노자가 아니며, 노담이 권위를 갖는 유일한 사건은 공자를 가르

친 사건뿐이다.

· 만약 『장자』 「내편」이 공자와 노담이 만난 사건의 최초의 기록이라면, 주목해야 할 것은 『장자』 「내편」에서 공자와 그의 제자들이 도가의 대변자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또한 거기에서 노담은 일정한 위치를 갖는데 그것은 결코 도가로서가 아니다.

노자의 출관 설화와 『도덕경』 전수

1.3 노자는 도와 덕을 닦았다. 그의 가르침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세상에 이름을 알리지 않는 데에 힘쓰라는 것이다. 그는 오랫동안 주나라에 머물다가 주나라가 쇠락하는 것을 보고 이에 떠나갔다. 함곡관에 이르자 관령 율희가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은둔하고자 하시는군요. 제발 저를 위해 글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노자는 도와 덕의 뜻을 말한 오천 여 언의 상하 두 편의 글을 써 주고는 떠나가 버리니 아무도 그가 어디서 인생을 마쳤는지 알지 못한다.

老子脩道德，其學以自隱無名為務。居周久之，見周之衰，迺遂去。至關，關令尹喜曰：「子將隱矣，彊爲我著書。」於是老子迺著書上下篇，言道德之意五千餘言而去，莫知其所終。

노자의 또 하나의 후보, 노래자

2.0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노래자는 초나라 사람인데 십 오편을 지어서 도가의 묘용을 말하였는데 공자와 같은 시대의 사람이라고 한다.

或曰：老萊子亦楚人也，著書十五篇，言道家之用，與孔子同時云。

노자의 장수와 그 이유

3.0 대개 노자는 백 육십 여 세를 살았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백 여 세를 살았는데 이는 그가 도를 닦아 수명을 길렀기 때문이라고 한다.

蓋老子百有六十餘歲，或言二百餘歲，以其脩道而養壽也。

노자의 또 다른 후보, 주의 태사 담

4.0 공자가 죽은 후 129년 뒤에 사관들은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주나라의 태사 담이 진 나라의 현공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처음 진 나라가 주나라와 합쳐졌습니다. 합친 지 오백 년이 되자 나뉘어졌습니다. 나뉘어진지 70년이 지나면 진 나라에서 패왕이 나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담이 곧 노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세상 누구도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알지 못한다. 노자는 숨어 사는 군자이다.

自孔子死之後百二十九年，而史記周太史儋見秦獻公曰：「始秦與周合，合五百歲而離，離七十歲而霸王者出焉。」或曰儋即老子，或曰非也，世莫知其然否。老子，隱君子也。

<분석>

공자가 죽은 해는 기원전 479년이고 주의 태사 담이 진 현공을 만난 사건은 기원전 374년이다. 사마천은 일정한 연대기 속에서 사건을 기술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양자의 차이는 105년의 차이밖에는 나지 않는 사건이다. 이런 연대 설정의 오류를 제외한다 해도, 적어도 이것은 주의 수장실지사인 노담과 주의 태사 담을 동일시하려는 모종의 속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떨까?

염약거(閔若臚)에 따르면 『예기』 「중자문」에는 공자와 노담의 대화 가운데 일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춘추』에 나오는 일식 기사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를 근거로 추산하면 공자의 나이 38세 때이다. 이러한 설에 근거하면 공자가 38세에 만난 나이든 스승 노담이 그 후 105년을 더 살아서 진의 현공을 만나 진의 운명을 예언한 것이 된다. 이러한 이야기는 노담과 주의 태사 담을 연결시키고, 노자의 장생을 증거하는 매우 여러 가지 효과를 갖는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사실 그대로 이해될 수 있을까? 다음의 구절은 노자와 왜 이이가 되었는가를 잘 보여준다.

노자 후손의 계보

5.1 노자의 아들은 이름이 종인데, 종은 위나라의 장군이 되어 단간에 봉해졌다. 종의 아들은 주이고, 주의 아들은 궁이며, 궁의 현손은 가인데, 가는 한 나라 효문제 때 출사하였다. 그리고 가 의 아들 해는 교서왕 양의 태부가 되었는데, 이 때문에 그의 가문이 제 나라에 살게 되었다.

老子之子名宗，宗爲魏將，封於段干。宗子注，注子宮，宮玄孫假，假仕於漢孝文帝。而假之子解爲膠西王卬太傅，因家于齊焉。

노자의 학문과 현황

5.2 세상에서 노자를 배우는 자들은 유학을 배척하고 또한 유학을 하는 자들 또한 노자를 배척한다. “도가 같지 않으면 서로 논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니, 어찌 옳은 것이겠는가? 이이는 무위하면서 스스로 변화하고, 고요한 가운데 스스로 바르게 하였다.

世之學老子者則紕儒學，儒學亦紕老子。「道不同不相爲謀」，豈謂是邪? 李耳無爲自化，清靜自正。

『노자』 속의 인간들

『노자』에 수십 번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인간은 당연히 ‘성인(聖人)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러한 성인을 추구해야 하는 존재, 현실의 지배자들인 ‘후왕(侯王)로 3회(32장, 37장, 39장) 나온다. 그리고 이들의 보조자로서 문(文)과 무(武)의 기술을 터득한 ‘사(士)가 3회(15장, 41장, 68장) 나올 뿐이다. 『노자』의 저자와 독자는 바로 이들이다. 『노자』는 평범한 서민이나 백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노자』를 읽고, 이를 실천하여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길과 그 힘을 체득해내야 하는 사람들, 이들을 나는 ‘호모 임페리얼리스’(homo imperialis) 즉 천하의 패권을 두고서 치천하(治天下)의 이상을 내걸고 이를 위해 정치적, 군사적, 문화적, 과학기술적 실천을 행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제시한 바

있다. 달리 말해 이들은 천하의 대권 지망자들로서, 바로 『노자』를 읽고 실천하고자 한 주인공들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노자』는 철저하게 권력의 기술에 관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성인과 사(士)

용례	빈도	용례상의 특징
聖人 侯王	31회 3회	- 성인(聖人)은 이상적 통치자로서 천지(天地)의 작용에 유기적으로 도(道)를 행하는 도의 집행자이자 도의 주체 - 후왕(侯王)의 경우는 『노자』가 말하는 성인 혹은 도의 모범을 따라야 하는 현실적인 『노자』의 독자이자 도덕의 실행이 요구되는 모방자
士	5회	- 上士, 中士, 下士. (41장) - 古之善爲士者不武, 善戰者不怒, 善勝敵者不爭, 善用仁者爲下.(68장) - 古之善爲士者, 微妙玄通, 深不可識.(15장)

백성 혹은 사람(人)

용례	용례상의 의미	용례
주격 '人'	- 생물학적 본성 이나 인습적 행태 를 보이는 본성적 인간 - 타산지석이 되 거나 배움의 대상 이 되는 인간	- "人生之柔弱, 其死堅強."(76장) - "天下多忌諱, 而人彌貧; 人多利器, 國家滋昏; 人多伎 巧, 奇物滋起; 法物滋彰, 盜賊多有. 故聖人云: '我無爲, 人自化; 我好靜, 人自正; 我無事, 人自富; 我無欲, 人自 朴.'"(57장) - "人之所畏, 不可不畏."(20장) - "天地上不能久, 而況於人?"(23장) - "是以聖人執左契, 不責於人."(79장)
목적격 '人'	- 『노자』의 능동 적 '주체'가 따라야 할 규범적 인간상 혹은 현실적 행위 의 대상 - 나와 구분되는 세속적 인간상	- "우인愚人"(20장), "지인知人"(31장), "승인勝人"(31 장), "선인善人"(62장, 79장), "사인使人"(61장, 80장), "상 인傷人"(60장), "혹인畜人"(61장), "용인用人"(68장), "시 인示人"(36장), - "五色令人目盲; 五音令人耳聾; 五味令人口爽."(12장) - "중인衆人"(『노자』 8장, 20장), "속인俗人"(『노자』 20장),

(끝).